

‘모험가들의 도시’…곡성군 체류형 관광 메카 박차

섬진강·동악산 등 활용 액티비티 코스
집라인·트레일 러닝 ‘스릴+치유’ 결합
내년 ‘스토리텔링 마케팅’ 도입 운영도



곡성군이 정직인 관람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모험형 관광도 시로의 화려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 ‘모험가들의 도시, 곡성’을 주제로 한 4개의 신규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코스 패밀리 운영과 콘텐츠 확장에 나선다.

이번 프로젝트는 곡성 지역 내 산과 강, 그리고 숲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짜릿한 스릴과 깊은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는데 방점을 놨다.

군은 이를 통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르고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곡성군이 역동적인 체험이 가능한 4개의 신규 관광 코스를 앞세워 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곡성 죽곡면 대황강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모습.

군은 ▲섬진강·대황강 글로벌 익사이팅 캠핑지 ▲동화 속 익사이팅 캠핑지 ▲동악산 트레일 러닝 캠핑지 ▲설산 트레일 러닝 캠핑지 등 총 4개 코스를 아심차게 선보였다.

각 코스는 곡성의 지리적 특성을 십분 활용해

구성됐다. 우선 곡성 강빛마을의 모험 시설과 집라인, 그리고 창공을 가르는 패리글라이딩은 모험심을 자극하며 깊은 즐거움과 단위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섬진강 줄기를 따라 시원하게 뻗은 자전거 라

이딩 코스는 탁 트인 개방감과 안전한 주행 환경을 갖추 이미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여기에 동악산과 설산을 배경으로 한 트레일 러닝 코스는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

을 음미로 느끼며 힐링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어 스포츠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진행된 시범 운영에서도 이들 코스는 합격점을 받았다.

군이 최근 1개 코스를 선정해 진행한 패밀리(Familiarization Tour)에서 참가자들은 짜라인 등 모험 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섬진강 변의 수려한 풍광을 감상하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군은 성과와 현장 호응을 발판 삼아, 내년부터 4개 관광 코스 전체를 대상으로 각 코스에 얹힌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도입하고 지역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정식 여행 상품으로 출시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은 자연과 모험, 치유와 체험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 군만의 색깔을 입힌 명품 여행 상품을 통해 곡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무르는 관광지’이자 ‘모험과 힐링의 성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 기자

장흥 진균류바이오센터, 개발 제품 면세점 입점

(주)肯자임 협업 무화과 발효 제품 출시
지역 농산물·과학 접목…전 주기 지원



발효무화과플러스’와 ‘수분주머니’. <장흥군 제공>

장흥군 진균류바이오센터가 지역 농산물과 첨단 발효 과학을 접목해 개발한 제품을 면세점에 입점시키는 등 ‘K-발효 식품’의 산업화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센터는 최근 발효 전문 기업인 (주)肯자임과 협력해 개발한 신규 식품 2종의 상용화에 성공, 국내 주요 면세점에 진출하는 폐거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연구기관이 단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원료의 규격화부터 성분 분석, 공정 표준화까지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해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시 제품은 ‘발효무화과플러스’와 ‘수분주머니’로, 모두 국내산 무화과를 핵심 원료로 사용했다. 특히 ‘발효무화과플러스’는 국내 연구

유, 미네랄을 앞세운 건강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제품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형 웰니스 식품’의 매력을 알리며, K-컬처 열풍 속에 높아진 한국 발효 식품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지역 농가(원물 생산), 연구기관(기술 검증·소재화), 민간 기업(제품화·판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센터는 이를 발판 삼아 지역 특화 자원의 고부가 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주도할 방침이다.

진균류바이오센터 관계자는 “이번 면세점 입점은 지역의 발효 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흥의 풍부한 생물 자원과 발효·진균류 기술을 융합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담양군 ‘2025년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

동체의 연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은 공연과 체험, 전시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으며, 평생학습 과정을 통해 실력을 갈고닦은 5개 팀의 열정적인 발표 공연을 시작으로 가죽공예와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돼 참석자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시장에는 평생학습 동아리와 행복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각 교육기관에서 정성

껏 제작한 작품들이 전시돼 학습자들이 쓴 노력과 성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군민은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이웃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얻었다”며 “직접 만든 작품이 전시된 것을 보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회는 군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고흥분청박물관 ‘소록도에서, 희망에 살다’ 교류전

한센인 교육자료 19점 공개

고흥군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록도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희망을 염원하는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까지 박물관 2층 로비에서 ‘소록도에서, 희망에 살다’ 교류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남 동부권 국립박물관(분청문화박물관·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국립순천대박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전시장에서는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이 소장한 교육자료 19점을 만나볼 수 있다. 과거 소록도 주민들이 스스로 학교를 세우고 운영했던 녹산초·중학교와 성실중고등성경학교 등의 흔적이 담긴 유물들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만든 문예지와 빛바랜 종이시 험지, 성적표 등을 고난 속에서도 배움을 통해 희망을 새겼던 주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해당 유물들은 국립나주박물관의 보존 처리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소록도 밖에서 공개돼 의미를 더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한센인들이 직접 만든 자료를 통해 근현대 소록도의 역사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기회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구례군-道교육청, 교육자치협력지구 ‘맞손’

디지털 기반 글로벌 교육 활성화

구례군이 전남도교육청과 손잡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미래 정사진을 그린다.

25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구례교육지원청 섬지뜰 다담실에서 김순호 군수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교육자치협력지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구례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1대1

대응 투자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구례형 미래 교육체계 구축과 AI·디지털 기반 글로벌 교육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

지원 규모는 1년 차에 각 5억원, 2~4년 차에는 각 3억원씩이며, 주요 협력 사업으로는 마을학교 운영 내실화, 외국어 및 디지털 교육 확대, 구례인생유학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구례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는 구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보성군, 전국 최초·유일 4년 연속 청렴도 ‘1등급’

반부패 추진 등 4개 항목 만점

보성군이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청렴 1번지’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25일 보성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로 군은 전국 70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1등급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군의 종합청렴도는 86.2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78.2점)보다 8점이나 높았으며, 기관의 반부패 의지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

에서 94.0점을 기록해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 ▲청렴교육 실현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 방지 제도 구축 등 4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이는 ‘청렴해피콜’, ‘익명 신고 QR코드 도입’ 등 현장 체감형 시책을 지속 추진하며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한 결과로 평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4년 연속 1등급 달성은 공직자들의 실천과 군민의 신뢰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보성다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언 기자

화순사랑상품권, 내달 1일 판매 재개

화순군은 25일 “예산 소진으로 종료된 화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으로, 할인율은 지류와 모바일 등 유형에 따라 10~15%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올 해 1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나, 지역 민의 폭발적인 수요 덕분에 이날자로 예산이 전액 소진됐다.

다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 및 정책 발행 구매는 가능하며 가맹점 환전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상품권 이용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올해는 다양한 혜택으로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예산이 계획보다 빠르게 소진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상품권이 내년에도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